

말씀

온전한 감사 (하박국 3:16-19)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가 멸망당하는 공포와 두려운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온전한 감사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환난 가운데 드리는 감사입니다(16절). 하박국 선지자는 다가올 환난이 두렵고 무섭기에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으며, 내 몸의 처소가 떨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환난으로 인해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환난을 눈 앞에 두고도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환난 가운데서 드리는 감사와 찬양, 이것이 온전한 감사입니다.

2. 없음에도 드리는 감사입니다(17절).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먹을 것도, 양식도, 사업장도 모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인생으로 비유하자면 철저하게 부서진 인생을 의미합니다. 성공하고 풍성한 가운데는 쉽게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아무 것도 없는 고난 가운데 감사하며 살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감사는 비록 가진 것이 없을 지라도, 즉 아무 것도 없는 가운데 드리는 감사입니다.

3.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18절). 현실은 두려움과 무서움이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신앙으로 인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은혜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한 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나의 힘,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온전히 감사하는 가정이 되길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인생에 환난이 닥쳐와도, 비록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을 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며 온전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추석 가정예배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한가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전중부교회

DAEJEON JUNGBU CHURCH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2022년 추석 명절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이
찬 송 559장 다 같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대표기도 가족 중 한분
성경읽기 하박국 3:16-19 가족 중 한분

16.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17.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말씀나눔 온전한 감사 인도자
주기도문 다 같이

예배 순서는 다음과 같이 준비합니다.

- 1) 가족이 한 상에 함께 둘러 앉아 예배합니다.
 - 2) 예배 순서지를 가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 3) 가족들이 성경읽기나 대표기도순서를 나누어 맡아 진행합니다.
 - 4) 대표기도나 설교가 어려우시면 예문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 믿지 않는 가족들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도록 권면하시되 가정의 화목을 위하여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예배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 다음과 같은 일은 삼가 주십시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께만 예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 1) 향이나 초는 켜지 않고 음식상도 미리 차려놓지 않습니다.
- 2) 선조를 위한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 3) 선조들의 명복을 비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